

## 제 2 캠퍼스의 虛虛實實

柳 一 相

(建國大 新聞放送學科)

### 글 머리에

원고 청탁을 받은 후 대학교육과 관련된 수필을 쓰려고 마음 먹고 보니 필자가 속해 있는 제 2 캠퍼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특이 사항이 떠올랐고 자연스럽게 관련 자료를 수집해 읽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필자 역시 제 2 캠퍼스 소속으로서 이 지면을 위해 아주 좋은 주제를 골랐고 의견을 개진할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제 2 캠퍼스는 수년 전부터 문교 정책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왔고 대학인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온 바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제 1 캠퍼스에는 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제 2 캠퍼스에 단독 설치된 학과에 재직해 왔기 때문에 제 2 캠퍼스의 특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제 2 캠퍼스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직접 깨닫게 되었고 그 해결 방안의 마련에 어떤 방식으로든 협력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동안 제 2 캠퍼스 문제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소리 없는 불만과 자학에 가까운 피해 의식 때문에 안으로만 끓었고 해결 방안은 외피만을

걸돌았다. 그러나 드디어 학부형, 졸업생뿐만 아니라 현재의 재학생들까지도 사회의 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열악한 교육 조건, 사회에서의 불평등한 대우 및 자신들에게 열등 의식과 패배감만을 강요하는 교육 제도의 모순 구조에 눈뜨게 되면서 분교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요구가 사회 전반에 폭 넓게 확산되기에 이른다.

지난 9월 13일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서 전국 10개 대학 제 2 캠퍼스의 총학생회 연합 건설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분교 정책의 원천적 철폐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었다. 시위에 의해 자신들의 집단 의사를 발표하게 된 학생들의 주장을 유인물을 통해 살펴 보면서 그 목소리가 거칠고, 지나치게 흥분되어 있으며 합리적 설득이 아닌 투쟁 구호 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점이 안타까웠지만 그들의 주장은 투박한 대로 우리의 심금을 울렸다. 그들은 지난 수년에서 약 십년 가까이 그들의 선배로부터 현재의 자신들까지 제 2 캠퍼스의 학생이기에 겪어야 했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각 대학교별 고립·분산 투쟁이 갖는 한계로 인하여 분교 정책의 근본적 모순을 타파

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음을 공감하고 이제 각 대학교간 연대 투쟁의 목표와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단계로까지 의식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야기를 좀더 깊이 있는 내용에까지 끌고 가기 위해 제2캠퍼스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 보는 게 순서일 듯하다.

제2캠퍼스라는 오늘의 이름이 가진 의미보다 잘 이해하자면 외국의 멀티캠퍼스 체제로부터 구상된 문교 정책의 변천사를 살펴 보아야 한다. 몇 년 전 제2캠퍼스는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분교로 출발, 그 후 소재지의 지명을 딴 ○○분교, ○○캠퍼스로 불리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들 캠퍼스의 공동적인 이해에 관심을 모으고 그 발전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일군의 학생들에 의해 제2캠퍼스라는 명칭을 갖게 된 듯하다. 그러나 제2캠퍼스로 이름을 고쳐 부른다고 하여 ○○캠퍼스, ○○분교 시절과 비교할 때, 대학의 위상이나 평가에 큰 변화가 온 것은 아니다. 다만 캠퍼스의 규모 면에서 부분적으로 증원·증파가 있었으며 교지 확보와 건물 신축이 활발해졌고 제2캠퍼스에 몇 개의 단과대학과 특수대학원이 생기고 부총장직제가 신설되어 고급 보직자의 수가 늘었을 뿐 분교 정책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 구체적인 개선 방안의 마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로 서울의 본 캠퍼스와 제2캠퍼스간에는 이질감이 깊어 가고 갈등이 첨예화하여 제2캠퍼스의 예속적 교육 풍토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그 구체적 증거들로 제2캠퍼스 교수들의 제1캠퍼스 본부 행정 참여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반면 제1캠퍼스 교수들의 제2캠퍼스 교위 보직과 본부 직원의 분교 행정 통제는 계속되고 있고, 학생들 역시 대학 4년을 통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대입 학력고사 점수의 격차에 의한 열등 의식을 불식시키지

못한 채, 문교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뽐내시키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당초 분교를 권장하게 된 문교 당국의 순수한 의도를 조금도 곡해하고 싶지 않다. 문교부는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과 지방 인구의 서울 유입을 억제하면서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분교 설립을 권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문교부는 지역 문화의 균등한 발전과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대전권·전주권·광주권·마산권·대구권 등에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분교를 설치하게 유도하였다. 이것은 서울 중심의 대학 문화를 지방 주요 도시에 폭 넓게 확산시키고 서울과 지방 도시간의 문화적 편차를 극복하며 나아가 서울·지방간 대학 문화의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그것을 토대로 모든 대학의 질을 상향 조정하려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사학 재단은 관리 운영의 난점과 지방 국립대학과의 경쟁을 우려하여 원거리 분교 설치를 기피하고 지난 '78년 단국대 천안캠퍼스를 시작으로 '80년초까지에 걸쳐 중부권과 경기도 일원에 앞 다투어 분교를 설치하여 당면한 재정난 해소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듯하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교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내륙 오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싼 값에 교지를 확보할 수는 있지만 통학상 교통이 불편하고 인근에 산업체도 별로 없는 원경 벽지여서 대학 도시가 갖춰야 할 문화 여건이 극도로 불비하였으며 가뭇해야 소도시에 인접해 있을 뿐이어서 대학 외부와 단절된 채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대학생이 생활하기에는 엄습하는 고독감과 이에 따른 정신적 방황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대부분이다.

분교 정책은 이처럼 문교 당국과 사학 재단간

의 동상이몽으로 인해 어이없게도 지방 분교를 각종 사회적 갈등의 미로 속에 처넣었으며 그 졸업생 수의 증가와 사회 진출의 저조가 상승 작용을 빚어 이제는 제2캠퍼스 전체의 안정을 뒤흔드는 무서운 시한폭탄이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 제2 캠퍼스의 고민

입지 조건의 문제를 시원으로 하여 파생된 각종의 갈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극복하기 어려운 콤플렉스에 빠지게 했고 교수들의 발전 가능성이나 학문적 진보를 제한하는 불편한 교수 여건과 분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수 환경은 대학 자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기능할 형편이 되고 말았다. 아울러 취업이나 진학에 있어서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지역 사회의 외면 내지 냉대는 분교생의 열등 의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을 뿐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제2 캠퍼스 재학생 중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 출신이라고 한다. 이들은 학력고사 점수 때문에 부득이 못마땅한 기분으로 분교에 진학했고 매일 또는 주간 단위로 통학하다가 졸업과 동시에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학교 인근의 하숙촌은 취락 환경의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나 남·녀 대학생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의 형성은 요원한 형편이며 농촌 도시나 농촌 취락의 폐쇄적·고답적 분위기 때문에 남·녀 학생들의 자유로운 교제는 이단시되고 지나치게 바닥이 좁아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분교 지역은 운이 나빠 입학하게 되었던(물론 학력고사 성적에 의해서) 젊은이가 대학 4년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길에 지나지 않는 곳이 되었다.

김수일 교수(연세대)가 지적하듯이 대개의 경우, 분교가 위치한 지역 사회나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진학자 수는 극히 적고 지역내 고등학교에서의 해당 지역 분교에 대한 입학 선호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뿌리 깊은 서울 중심 정신과 도시·농촌간 개발의 격차로 지방 출신 우수 학생의 서울 지역 대학 지원은 계속 느는 추세인데다 학부모의 열망 또한 이를 부추기고 있으며 최근 지방 국립대학 출신의 진학 지도 교사의 권유는 서울 소재 대학에 이어 지방 소재 국립대학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주고 있는 경향이어서 지역 사회 출신의 동일 지역 분교 입학자 수는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이라고 한다.

아울러 분교 캠퍼스의 대학 문화는 청년 문화가 가지는 신선한 충격과 심미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축적하지 못한 채 해마다 신입생에 의해 보충되는 유입 문화와 재학생의 어설픈 무경험의 문화가 혼효되어 대학 문화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자리잡지 못하게 하고 협동 정신과 창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대학 문화의 건전한 성숙을 제한한다.

제2 캠퍼스 인근에는 특히 인문·사회계의 경우 학생들과의 산학협동을 이끌어 갈 기업체도 없고 반월 공단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를 제외하고는 과학 기술을 교류하거나 뒷받침해줄 연구 기관도 없고 졸업생을 맞아줄 지역 사회 안의 직장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전공 분야별로 지역 사회와의 소원한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연결 고리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제2 캠퍼스 소속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제아무리 설득해봤자 졸업 후면 그 지역 사회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단절되어 버려 마치 군에 입대하여 특정 지역에 주둔해 본 경험과 유사한 추억의 느낌만이 남을 듯하다.

제2 캠퍼스가 안고 있는 고민은 학생뿐만 아

나라 소속 교수들에게도 아주 심각하다. 오죽하면 제2캠퍼스 학생들의 데모 구호에 ‘불쌍한 우리 교수님’이라는 말까지 등장했겠는가! 제2캠퍼스에 소속된 교수들의 정상적인 교수 활동은 이제 서울 소재 대학은 고사하고 지방 대도시나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대학 교수들에 비해서도 더욱 위축되어 있다. 교수들의 고유 기능인 연구와 교육과 봉사는 제2캠퍼스의 경우 아태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어렵다. 이들 역시 불운하게도 분교에 자리잡은 탓에 교수 활동은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데 그치고 있고 대학원이 없는 관계로 학문적 재생산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거기에 조교의 부족으로 인해 연구와 교수 활동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계속적인 학문적 정진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교수 지원 체제는 부총장, 학장, 처장, 학과장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상위 보직자의 경우 분교 소속 교수이기 때문에 일체감도 없고 합의보다는 결정과 지시 일변도로 학사를 운영하는 경향이 짙어 분교 교수들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차등에 의한 소외감을 조장시킬 수도 있다. 사무 보조 역시 분교 체제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행정에 있어서도 자율과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분교 책임자의 개성에 따라 교수 사회의 질서가 심히 침해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인지 분교내의 보직은 중앙의 대학 사회에서 남득할 만한 위촉 기관의 전통이나 관례를 무시한 채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당성을 소청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물론 없다. 그저 싫으면 그만 두라는 위협적 분위기가 분교 교수 사회에는 엄연히 실재하고 있는 것이다.

교수가 고등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사회적 봉사는 분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과 서울 편중의 봉사 요청으로 인해 방학 때를 제외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아울러 분교 교수는 때로 학생 지도를 명분으로 하여 주거의 자유, 특히 숙박의 자유를 사실상 자주 억압 당하고 있으며 연구 공간과 휴식 공간이 지나치게 근거리에 위치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의 분교 정책은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생활상의 불편과 경제적 낭비를 가중시킬 뿐 본·분교 캠퍼스의 균형 있는 발전이나 캠퍼스 간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 해결 방안은 없는가?

분교가 현재처럼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시·군에 위치하고 있는 한 해당 지역의 우수 학생 확보나 졸업 후 지역 사회에서의 직업적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학원도 없고 산업적 배려도 없는 형편에서 교수들의 학문적 발전과 지역 사회에 대한 대학인의 봉사도 생각하기 어렵다. 결국 미국식 멀티캠퍼스의 이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불가능해졌음을 하루 빨리 자인하고 현재 각 대학교의 제2캠퍼스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정책적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해 제2캠퍼스가 새로운 캠퍼스로 분리·독립하는 것은 재정, 지리적 위치, 교육 프로그램 등 모든 면에서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1·2캠퍼스로 나누어 캠퍼스별 균형 발전이나 운영 효율화의 준거를 찾기 또한 어려우므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본·분교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여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필자는 기왕의 분교 정책이 어떤 사정에서든 현재적으로 대학의 갈등을 낳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불만이 악화되어 대학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기 전에 분교 정책을 개선해 가는 단계적 방안을 3 단계

---

로 나누어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 싶다.

첫째 단계는 서울 캠퍼스와 제2 캠퍼스간에 학생들로 하여금 학기당 1~2 과목의 학점 교류를 인정해야 한다. 분교 학생이 본교에서 학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동일 대학교가 실천 수범하는 일이 되어 남들이 보기에 도 모양이 좋다.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간에 사실상의 학점 교류와 공동 연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 분야의 유능한 교수진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문의 개방과 상호 협동은 물론 폭 넓은 교우 관계와 사제 관계의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와 숭실대·중앙대·인하대의 대학원 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점 교류제를 동일 대학교가 실시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둘째 단계는 본·분교간 중복 학과를 점진적으로 폐지·통합하여 1교 1과 체제로 전환시켜 가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동일 학과 교수의

본·분교 분리 임용 제도를 점진적으로 고쳐 차별적 대우를 없애고 대학원 강의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함으로써 연구와 교수와 봉사의 기회가 교수간에 평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단계는 분교 캠퍼스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여 농업 도시나 그 배후지에는 농축대학을, 공업 도시 근처에는 공과대학이나 자연계 대학을 이전시키고 사회과학 계열의 대학 중 지역 사회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학과는 서울캠퍼스로 옮겨 대학과 지역 사회가 진정한 산학협동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실패한 분교 정책을 원천적으로匡正하고 본·분교를 진정으로 하나의 대학교로 만들어 대학의 타고난 이상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필자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끝으로 글을 맺으면서 미안한 점은 본인이 참고한 여러 자료들의 출처를 수필체의 글 분위기에 맞추다 보니 일일이 열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글로써 신세진 여러 분들의 양해를 구하며 새로운 분교 정책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